

미즈타니 데이지로(水谷悌二郎) 일기 초록
-광개토왕비 연구를 중심으로-

다케다 유키오(武田幸男) 번각·해설
이나다 나쓰코(稲田奈津子)·미카미 요시타카(三上喜孝) 편집

【목차】

서문	37
편집에 즈음하여	40
1. 미즈타니 데이지로의 연보	41
2. 미즈타니의 가계도	46
3. 일기목록	47
4. 일기초록(일기장)	49
5. 일기초록(看聞抄錄)	100
6. 稿本 목차	102
7. 스에마쓰 야스카즈(末松保和)의 관계기사	103
주	107

서문

고구려 광개토왕비는 잘 알려져 있듯이 일본열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고대사연구에 없어서는 안 되는 동시대 사료이다.

그런데 그 광개토왕비의 학술적인 연구방법론을 확립하여 당시 연구 수준을 크게 향상시킨 미즈타니 데이지로(水谷悌二郎) 자신에 관해서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은 아닐까. 본고는 광개토대왕비 연구에 심혈을 기울인 재야의 연구자 미즈타니 데이지로의 인생과 학문에 대해서 광개토왕비를 중심으로 집성하여 저록한 것이다.

미즈타니는 1930년대에 고향인 미에현(三重縣) 구와나시(桑名市) 다도(多度)와 관련이 있는 「多度神宮寺伽藍緣起并資財帳考」, 중국 한대 낙랑군 粘蟬縣碑에 관한 논문 「粘蟬碑考」를 발표했는데, 약 반세기에 걸친 연구 생활을 통해서 가장 높이 평가받는 것은 스에마쓰 야스카즈(末松保和) 선생이 종래 광개토왕비에 대한 “연구 흐름을 일변시켰다”고 평가한 논문 「好太王碑考」(『書品』100, 1959년 6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논문 「好太王碑考」는 발표된 지 18년이 지난 무렵에 겨우 저서 『好太王碑考』付 「水谷拓本(縮尺寫眞)」(開明書院, 1977년 9월)으로 스에마쓰 선생의 ‘해설’을 수록하여 간행되었다. 이 미즈타니의 연구를 구상한 《好太王碑考》가 연구사적으로 가지는 특징은, 사건에 의하면 첫째로 광개토왕비 목본(墨本)의 기본적인 세 유형 즉 오늘날 말하는 原石拓本, 墨水廓填本(雙鉤廓填本), 石灰拓本の 세 유형으로 각각 구별하고, 또 설득력이 있는 논거를 바탕으로 비석의 원 상태에 가장 가깝고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목

본 유형은 원석탁본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둘째로 원석탁본의 실태와 그 성질을 추구하여 그 특질을 가지는 탁본을 도쿄(東京) 분쿄구(文京區) 혼고(本郷)의 에다분가도(江田文雅堂)에서 발견하여 전쟁의 피해가 심한 전쟁 말기에 그 탁본, 이른바 ‘미즈타니(水谷) 탁본’을 입수한 것이다. 셋째로 그 미즈타니 탁본을 자세히 살펴보고, 조사하여 그 당시로는 단연히 수준이 높은 판독문, 이른바 ‘미즈타니 석문’을 작성하여 제시하고 공개한 것이다.

이상의 특징과 관련해서 필자에게 인상 깊게 남는 것은 진실 추구로 향하여 나아가는 학문적 탐구심이다. 미즈타니의 그러한 불굴의 탐구심은 전시체제 속의 어려운 시대를 배경으로 원고용지조차 구하기 어려운 전쟁 중과 전쟁 후의 자유롭지 못한 시기에 기존의 학계와 거의 무연하고 고고한 연구 환경에서 미증유의 어려운 시기임에도 발휘된 것이었다. 그것을 지금 다시 상기시켜 준 것이다.

미즈타니가 일찍이 심혈을 기울여 추구하여 드디어 입수하고 애지중지한 미즈타니 탁본은, 그 후 미즈타니 유족의 후의로 국립역사민속박물관에 기증되었다. 그 과정에서 필자는 당시 관장이던 이시이 스스무(石井進)의 의뢰를 받아 여러모로 도와주다가 미즈타니의 유족들과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미즈타니가 남긴 여러 가지 학문적 유품, 즉 광개토왕비에 관한 몇 권의 稿本이나 수많은 일기장 등 귀중한 유품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바로 그 무렵이었다.

필자는 미즈타니의 광개토왕비에 관한 참신하면서도 정치한 연구 성과와 그 연구 성과의 형성 과정에 강한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稿本과 일기장 등을 차용해 달라고 요청하자 흔쾌히 허락하여 주었다. 또 그 후에도 다른 稿本の 추가 차용이 허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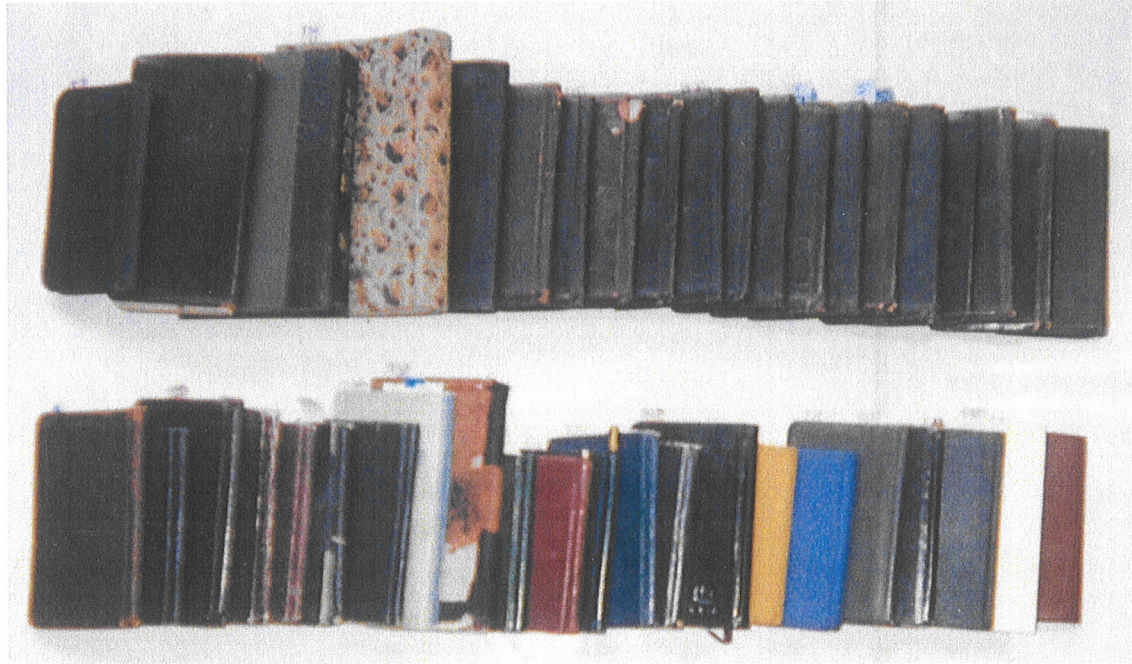
처음에 빌린 것은 『(昭和)二三年稿本』(稿本A, 2권), 『二四年稿本』(稿本B, 3권)과 大正 7(1918)년도~昭和46(1971)년도의 「日記帳」 42권(계 7년도 분 결여)이었다. 각 稿本の 메모나 일기장으로 정리해 보면 稿本A는 미즈타니가 장질을 세워 계속 집필한 것이며, 그것을 학술잡지에 발표하기 위해 급하게 요약하여 감량한 것이 稿本B였으며, 뒤에 『書品』 100호의 논문 「好太王碑考」로 발표되었다.

그리고 추가로 빌린 稿本은 『(昭和)二〇年稿本』(「碑辭稿本」 1권 기타 결여 있음), 『四分冊稿本』 附一冊(「好太王碑文研究」 4권, 1권 欠如)와 『碑辭證例寫眞臨模』(「證例稿本」 1권, 뒤에 稿本A로 분산, 전용되었다)였다.

이상 稿本 5부와 이미 간행된 논문과 저서를 서로 대조하고 고찰하는 것을 통하여 미즈타니의 체계적인 연구 구상 《好太王碑考》가 형성된 과정과 그 계통관, 즉 본류로서의 『二〇年稿本』 → 稿本A → 稿本B → 논문 「好太王碑考」 → 저서 『好太王碑考』라는 계통과 그와 다른 지류의 『四分冊稿本』의 계통이라는 두 계열의 계통관이 분명해졌다. 『四分冊稿本』은 논문 「好太王碑考」를 발표한 후에도 가까이 두고 시종일관 침착을 계속한 미즈타니의 수탁본이었다.

이들 稿本과 함께 중시한 것이 미즈타니가 大正 7년부터 날마다 극명하게 기록한 「日記帳」이었다. 단, 일기장을 보고 좀 당황한 것은 42권이냐 되는 분량도 그렇지만 수첩용의 작은 연필로 짝 채워 쓴 작은 글자, 당일 칸에 다 들어가지 않아서 길게 이어지는 문장, 때로는 뒤에 이어지는 문장을 놓칠 것 같은 문장 구성이었다. 게다가 당시 일기장 종이의 조약함이 박차를 가하였다. 지금 돌이켜보면 일기장 대부분은 2배나 4배로 확대 복사하여 도쿄대학을 퇴직한 후에 근무한 대학으로 왕래하는 신칸센 안에서

몇 년 동안에 걸쳐 판독하여, 느낀 것을 그대로 주석을 단 차 안에서의 기억이 어렵듯이 되살아난다.



<그림1 일기장 42권>

일기장 판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의외로 즐거운 작업이기도 했다. 미즈타니의 일기장의 솔직하고 생생한 문장은 필자의 전쟁 중과 전쟁 후 시기의 생활 체험이나 여러 회상과 일부 겹치는 부분도 있어서, 때로는 거기에 공명하여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때로는 그 후의 필자 연구에도 시사하는 바가 컸던 것이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주목하고 싶은 것은 미리 은근히 기대한 것처럼 미즈타니의 광개토왕비 연구의 형성 과정의 거의 전모를 각종 탁본의 성격 판정에서부터 탁본 글자 하나하나의 판독을 새로 하는 것까지 미즈타니의 그때그때의 놀라움이나 기쁨과 함께 확인된 것이었다.

미즈타니 일기의 초록은 광개토왕비에 관한 기사에 한정하려고 시작했지만 얼마 안 있어 초록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게 되었다. 언뜻 보기에 광개토왕비와 관련이 없어 보이는 나라(奈良)·교토(京都)의 사찰과 신사의 탐방이나, 도쿄 다마가와(多摩川) 주변의 패총·토기 찾기, 다독·난독의 버릇 등은 미즈타니의 연구 방법 형성과 과연 무관했던 것이었을까. 도쿄를 초토화시킨 전쟁·공습·폭격·전쟁의 재해 등은 미즈타니의 연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해서 초록하지 않은 일기의 분량은 자연스럽게 늘어지게 되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판독·번각한 「日記抄録」은 매우 방대한 분량이 되었다. 그 일기초록에 관한 문제는 ‘□’ 기호로 제시한 글자, 즉 판독하지 못했던 글자가 많은 점이다. 이번 기회에 다시 판독·번각을 시도하려고도 생각해 봤지만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그 기회를 얻을 수가 없었다. 미즈타니의 유족에게 연락하여 미즈타니의 원고와 일기장의 소재를 문의해 보니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고 친척들도 모른다는 대답이었다.

일기초록의 또 한 가지 문제는 필자가 일기 각 조항에 주석한 ‘해설’이다. 실은 해설이란 이름뿐이고 일기에 보이는 용어·문헌·원고 등에 관한 설명 이외에 일기의 각 조항 내용의 특징, 각 기사 간의 상호 관계, 미즈타니의 필체나 그 당시의 동향 등에 관해서 그때그때 느끼고 깨달은 채로 적어 놓은 것들이다. 그것은 필자의 사적인 비망록에 불과하여 독자 등은 전혀 상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에는 이 비망록을 생략하거나 삭제하는 것도 생각했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하지 않던 것은, 이 기회에 미즈타니의 인생과 학문에 대해 널리 알렸으면 해서이며, 또 이 비망록이 소재 불명이 된 일기장의 문장을 다수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 일기초록은 매우 불완전하나마 미즈타니 일기의 원문을 기록한 유일한 문헌이라고 할 수 있다.

미즈타니의 일기초록이 공개되어 국립역사민속박물관 소장 「水谷悌二郎氏舊藏原石拓本」이 동아시아 고대사연구에서 차지하는 역사적 의의를 인식하고, 또 미즈타니의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됨과 불굴의 학문적 탐구심에 주목하여 관심을 가져준다면, 번각과 해설자로서 필자의 기쁨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것이다.

서문을 마무리함에 앞서 미즈타니의 일기초록과 미즈타니의 가계도 등을 본지에 게재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고 여러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미즈타니 노부코(水谷信子)님(데이지로 씨 차남인 요시오(吉夫)의 부인)께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본고의 기획, 각종 원고의 보충과 정리 등 번거롭고 어려운 편집을 기꺼이 담당해 준 이나다 나쓰코(稲田奈津子)·미카미 요시타카(三上喜孝) 두 분에게 감사한다.

【참고문헌】 줄저 『廣開土王碑との對話』(白帝社, 2007년) 제7장 「水谷悌二郎の廣開土王碑研究」, 『廣開土王碑墨本の研究』(吉川弘文館, 2009년) 각론1 제1장 「水谷悌二郎の「原石拓本」研究」

2021년 2월7일 識
다케다 유키오(武田幸男)

편집하며

미즈타니 데이지로(水谷悌二郎)의 일기를 공개하기로 한 경위에 관해 설명해 두고 싶다.

서문에 나와 있듯이 다케다 유키오(武田幸男) 선생이 도쿄대학을 퇴직한 후에 근무한 대학을 오가는 신칸센 안에서 방대한 미즈타니 데이지로의 일기를 몇 년간에 걸쳐 판독하여 거기에 주석을 더하는 작업을 계속했다는 이야기를 이나다와 미카미는 여러 번 다케다 선생으로부터 들었다. 미즈타니 일기의 기록은 다케다 선생의 두 권의 저서(『廣開土王碑との對話』(白帝社, 2007년), 『廣開土王碑墨本の研究』(吉川弘文館, 2009년))에 소개되어 있지만, 그것은 그저 일부에 불과하며 그 배후에는 방대한 양의 일기를 번각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그 이야기로부터 쉽게 상상할 수 있었던 같지만,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오랫동안 알 수 없었다.

2017년에 미즈타니 데이지로의 일기 복사본과 그것을 번각한 다케다 선생의 원고를

보게 되어서 매우 놀랐다. 그 일기의 방대한 분량도 물론이거니와, 또 다케다 선생의 문자 그대로 심혈을 기울인 번각과 미즈타니의 연구를 추체험하는 듯한 수많은 주석에 압도되었던 것이다. 이것을 미공표 상태로 두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무엇보다 광개토왕비 연구의 사학사상에 있어도 빼놓을 수 없는 미즈타니 데이지로의 연구 배경, 더 나아가서 재야 연구자의 학문적 형성 과정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사료인 것이다.

서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광개토왕비 연구의 가장 중요한 사료인 미즈타니 데이지로가 소장했던 광개토왕비 원석탁본은 현재 국립역사민속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으며, 그 탁본을 입수한 미즈타니의 학문적 형성을 밝히는 것은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의 책무가 아닐까 생각하여 다케다 선생에 의한 일기의 번각과 주석의 공개를 구상했다.

미즈타니 데이지로가 남긴 것은 일기장뿐이 아니라 일기장과는 다른 수첩도 존재하고 있다. 또 ‘稿本’이라고 불리는 것도 있다. 본고에서는 이들에 대해서도 일부 게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들을 포함해서 본고의 구성에 대해 약간 정리해 두기로 한다.

미즈타니 데이지로의 일기장을 번각과 주석을 한 것이 「4. 일기초록(일기장)」이지만, 일기장과 다른 수첩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가운데 일기장을 보충해 주는 내용이 있는 것도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광개토왕비 연구에 관련되는 부분을 번각과 주석을 한 것이 「5. 일기초록(看聞抄録)」이다.

또한, 서문서 보듯이 논문과 저서에 이르는 미즈타니의 연구 과정을 엿볼 수 있는 것이 稿本이다. 그중에서도 稿本A와 稿本B는 「4. 일기초록(일기장)」에도 자주 등장하는데 중요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 稿本の 개요와 목차에 대해 「6. 稿本 목차」로 게재했다.

그리고 미즈타니의 저서에 서문을 쓰는 등 미즈타니의 탁본 연구와 깊이 관련된 인물인 가쿠슈인(學習院)대학 교수 등을 역임한 한국사학자 스에마쓰 야스카즈(末松保和)이다. 스에마쓰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한에 대해 일기에 관계된 부분의 초출이나 참고자료와 함께 제시한 것이 「7. 스에마쓰 야스카즈(末松保和)의 관계기사」이다.

본고는 주로 이나다가 전체적으로 편집을 담당하였고, 미카미가 이를 보조하였다. 데이터 정리에 있어서는 마키 아스카(牧飛鳥)가 협력해 주었다. 기록하며 감사드린다.

이나다 나쓰코(稲田奈津子)

미카미 요시타카(三上喜孝)

[부기1] 일기를 번각한 다케다 유키오 선생은 2021년 8월 4일에 서거하였다. 본고의 ‘서문’이 절필이 되어버렸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부기2] 본고는 JSPS과학연구비 기반연구(B) 19H01301 「古代日本と朝鮮の金石文にみる東アジア文字文化の地域的展開」(연구대표자・三上喜孝)와 (C)16K02993 「東アジア儀禮文化の比較史的研究—「物品目録」からの復元的考察—」(연구대표자・稲田奈津子)에 의한 성과의 일부이다.

(번역: 하시모토 시게루)